

광주 개학 후 12개 학교 37명 확진...2천여명 자가격리

지난달 10일 확진판정 60대 환자 숨져 26번째 사망 순천 유치원 관련 확진자 속출...‘돌파감염’ 잇따라

2학기 개학 이후 광주 12개 학교(유치원 포함)에서 3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유치원 2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구 모 고등학교와 북구 모 중학교에서는 각각 학생 15명, 12명이 확진됐으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없었다. 중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직원, 가족, 교회로 n차 감염이 퍼져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어났다.

학생 확진으로 모두 3천169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2천245명이 자가 격리됐다. 이날도 북구와 남구의 초등학교에서 학

진자가 1명씩 발생해 각각 학생과 교직원 563명, 9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관련 4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전수 검사 관련 9명, 기존 확진자 관련 5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1명이다.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가 숨져 광주 26번째 사망 사례가 됐다. 전남에서는 전남 순천 한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돌파감염’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순천·여수·나주·광양 등 4개 시·군에서 14명이 코로나1

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순천에서 발생한 10명 중 8명은 전남 확진자가 나온 유치원 관련 확진자로, 이 중 6명은 원생, 2명은 가족이다.

또 순천의 한 어린이집 종사자가 확진돼 원생 13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도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순천 확진자 1명은 기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 확진자 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와 나주, 광양 확진자 4명은 기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 사례다.

이달주 광주복지건강국장은 “학생, 교직원 확진이 가족,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 지역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 검사받고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환기, 불필요한 이동 자제, 하교나 하원 후 곧바로 귀가하기 등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초등학교 진단검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유럽에 지자체 첫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도, 오스트리아 빈 판아시아매장 개설...년 120만 달러 수출

전남도는 8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위치한 판아시아(PanAsia) 매장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유럽 상설판매장 1호점을 전남 개설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선 정종만 판아시아 회장과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임창노 오스트리아 한인회장, 윤종석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관, 유병우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유럽시장 첫 전남 상설판매장 개설을 축하했다.

전남 상설판매장에는 보성녹차, 구운김, 담양한과, 해초국수, 표고 등 15개 사 6

2개 전남산 제품을 입점했다. 10월 중 장흥 아르미쌀을 포함해 15만 달러 상당의 2차 추가 물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앞으로 상설판매장을 통해 연간 120만 달러 이상의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기업인 판아시아는 아시아 식품 직수입을 통해 도소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업이다.

선양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자체 최초로 유럽시장에 오프라인 상설판매장을 개설,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유럽시장 판매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2호점, 영국 런던 3호점 등을 추가 개설하는 등 유럽 오프라인 신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남체인(플러튼) 1호점으로 시작한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은 이번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개설로 15호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437만 달러의 매출 효과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이번달 추석을 앞두고 280만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미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뉴저지주 한양마트, 버지니아주 k-마켓에 추가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올해 말까지 21호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제4수원지 해제, 물공급 차질·난개발 없을 것”

광주시 “지역내 3개 정수장 생산용량 일일 최대 76만 7천톤 충분”

광주시는 8일 “무등산국립공원 내 광주 제4수원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 물 공급 차질과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병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4수원지 상수원인 각화정수장 폐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먹는 물 공급과 자연환경 보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3개 정수장의 생산용량은 일일 최대 76만 7천톤으로, 150만 시민의 일일 최대 물 이용량인 53만(하절기 기준)을 넘겨 넘어서는 상태다.

정수장별로는 급수인 수가 88만명인

동구 용연정수장이 하루 30t, 남구 덕남정수장(급수인수 58만명)이 44t, 북구 각화정수장(수 2만명)이 2만t을 처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각화정수장의 경우 일일 최대 생산량의 2.6%에 불과한 데다 수질도 좋지 않아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광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정수장 폐쇄를 공식화한 바 있다.

또한 정수장 폐쇄로 자연스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 보호구역 해제 후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남게 돼 사실상 공원시설 외 건축이 불가능하고 해제 후 24만㎡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로 남게 돼 단독주택 등이 가능한지 하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초과해 이 역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염 본부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정수장 폐쇄가 불가피하고 폐쇄하더라도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역시 해제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지기자

김영록 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올라

장석웅 도교육감 28개월 연속 1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꺾고 1위에 올랐다.

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전월 대비 3.1%p 오른 6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5-3

0일, 8월 28-9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를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4.5%p 하락한 55.5%로 2위를 차지했고 이철우 경북지사(53.9%), 박형준 부산시장(53.1%)이 뒤를 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3.4%로 9위에 머물렀다.

광역시도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0.5%p 상승

한 65%로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전남도는 64.8%로 서울시와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58.4%로 6위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서는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51.0%의 지지율로 2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오늘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채용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9일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기업과 구직자 만남의 장이 될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전남도가 함께 주최하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목포 고용복지+센터, 목포중장년일자리회합

센터가 주관한다.

박람회는 온라인 영상면접관, 오프라인 현장채용관을 운영해 전남지역 기업 25개사와 구직 희망자의 일자리를 연결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한 참가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50명 미만으로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

은 전남일자리종합센터(061-281-1142)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들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2회 실시해 144개 기업에서 67명을 채용한 실적을 거뒀다.

최정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자리박람회가 경직된 채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오는 10월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시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드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대부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스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구인광고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캠코더, 카메라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062) 522-2000